

“강원경제 미래 전망 지역발전 함께 이끌 기회”

강원일보사 ‘CEO아카데미’ 경제계 주목

“강원을 이끌 CEO(최고경영자)를 모십니다.”

강원일보사가 개최하는 강원일보 CEO아카데미에 도내 경제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원일보는 CEO아카데미를 올해 처음 개설해 오는 25일부터 강좌를 진행한다.

도내 주요 경제계 인사와 각급 기관·협회 관계자, 기업 CEO들이 참가해 경제 정책 및 국내의 동향

을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그동안 일부 대학에서 AMP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CEO를 대상으로 언론사가 주최가 돼 개설·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1기 강원일보 CEO아카데미의 강사진은 흥남기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시작으로 경제계는 물론 법조·교육계 등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올해 첫 개설·23일 접수 마감

각종 분야 탄탄한 강사진 편성

25일 개강 흥남기 1차관 특강

특히 도내 CEO들을 위해 마련된 이 과정은 심리·역사·마케팅·스포츠 분야의 대중성을 갖춘 각 분야의 강사들이 나서 CEO들의 전문지식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탄탄하게 편성돼 있다.

25일 오후 5시 춘천 세종호텔에

서 열리는 개강식에는 춘천 출신인 흥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이 ‘대한민국 도약의 힘-창조경제’를 주제로 특별 강연한다.

홍 차관은 춘천고와 한양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기획재정부 대변인,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개강식을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되며 격주 목요일 강원일보사 대강당에서 오후 7

시부터 90분간 열린다.

강원일보사 관계자는 “강원일보 CEO아카데미는 지역 최고경영자들이 경험을 공유하는 큰 배움의 장이 되고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강원경제 발전전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최선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50명이다. 접수 마감은 23일까지다. 문의는 강원일보 경제부 ((033)258-1340-3)로 하면 된다.

남궁현기자 hyunng@kwnews.co.kr



황성벨라스톤CC출인원이벤트행사 협약식이 벨라스톤CC에서 최승진 황성농협장, 김만기 황성어사품조합 대표, 조창진 벨라스톤CC 회장, 박종태 농협황성군지부장(사진 왼쪽부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황성 벨라스톤CC 장학금 유지

어사품조합, 출인원이벤트 협약
쌀 경품 제공·황성쌀 홍보물 설치

속보=황성 벨라스톤CC갈데기 출인원 이벤트행사를 통한 황성인재육성 장학금 지원이 유지된다. 벨라스톤CC와 황성축협은 지난달 갈데기 출인원 이벤트 행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황성인재육성 장학금 지원이 중단위기(본지 7월27일자 11면)에 몰렸으나 황성어사품조합이 갈데기출 이벤트행사에 협찬하기로 해 황성인재육성 장학금 지원이 유지되게 됐다.

벨라스톤 CC(회장 조창진)와 황성어사품조합(대표 김만기)은 지난 19일 오후 벨라스톤CC에서 황성인재육성 장학회 후원을 위한 황성쌀 어사진미 갈데기출 출인원 이벤트협약을 체결했다. 황성어사품조합은 벨라스톤CC 방

문객들이 갈데기출에 1만원을 낸후 출인원하면 어사진미 4포(40kg)를 경품으로 제공하고, 벨라스톤CC는 티박스에 황성쌀인 어사진미 홍보물을 설치하는등 황성쌀을 집중홍보한다.

한편 벨라스톤CC는 지난 2011년부터 황성축협과갈데기출 이벤트 행사를 실시해 지난해까지 총 8674만원을 황성인재육성장학회에 기탁했다. 이 금액은 황성인재육성장학회 단일기탁자중 가장 많은 액수로 알려졌다. 권재혁

태백여성대회 29일 개최

제18회 태백여성대회가 오는 29일 오전 11시 태백고원체육관에서 열린다. 이번 여성대회는 사물놀이 공연과 인기가수 축하공연, 협동 공튀기기, 릴레이 공나르기, 5인6각 달리기, 디스코 릴레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김우열



하반기 민간주택 부진 불가피, 공공발주도 축소... 해외까지 ‘三重苦’

수주절벽 현실화... ‘탈출구’ 안 보인다

건설 수주절벽이 국내와 해외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21일 대한건설협회의 상반기 건설통계에 따르면,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69조41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73조9097억원)보다 6.6% 줄어든 것이다. 작년 총 수주액 기준으론 43% 수준에 그쳤다.

▶관련기사 2면
겉으로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하락폭이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르다. 상반기 공공공사 수주액은 18조7082억원으로 작년보다 20%나 줄었기 때문이다. 분양시장 호황으로 민간 주택 수주액이 떠받친 덕

상반기 국내 수주 69兆
지난해보다 6.6% 줄어
공공 분야는 20%나 급감
해외는 152兆로 ‘40% 뚝’
上高下低 전망 높아 ‘암울’

분에 그나마 하락폭이 감소한 것이다. 문제는 건설수주액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주택 수주가 하반기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미 상반기 민간 수주액은 작년보다 하락세로 돌아서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

게 되면 올해 국내 건설수주 감소 폭은 상반기보다 더욱 커질 전망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수주액이 작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건설수주는 하반기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감소한 129조원에 그칠 것”이라며 “특히 하반기 주택 수주가 42% 줄어들어 하락세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반기에 건설 수주 하락세를 반전시킬 만한 요인은 찾기 힘들다. 올해 추경에서 SOC예산이 빠졌기 때문이다. 주택시장도 하반기

에 중도금 대출 규제 등으로 더 나아질 가능성은 낮다.

해외건설은 더 심각하다. 해외 건설 수주액은 152조2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255조원)보다 40%나 줄었다. 작년(461조4000억원) 수주액과 비교하면 고작 32% 수준이다. 특히 텃밭인 중동지역 수주액이 작년보다 32%나 줄었다.

건설사들이 국내 건설시장이 좋지 않을 경우 해외수주에 눈을 돌렸으나 지금은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다. 유가 하락, 브렉시트, 글로벌 경기 불안으로 해외건설 시장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한상준기자 newspia@